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 행동 연구
: 제주 청수리 및 산양리 마을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전공

김 아 름

2023년 2월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 행동 연구
: 제주 청수리 및 산양리 마을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정 승 훈

김 아 름

이 논문을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김아름의 관광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崔容福



위 원

南玟爨



위 원

鄭丞勛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Local residents' behavioral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 A case study of Cheongsu-ri and Sanyang-ri villages in Jeju

A Reum Kim
(Supervised by professor Seung Hoon Chu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2023.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배경	5
제1절 계획행동이론	5
1. 합리적 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5
2. 계획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8
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4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	14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및 기준	17
제3절 선행연구	22
1.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23
2.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24
제3장 연구 설계	29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29
1. 연구 모형	29
2. 가설 설정	29
제2절 조사 설계	33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33
2. 설문지 구성	36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9
1. 조사 대상 지역	39
2. 자료 수집 방법	47
3. 자료 분석 방법	48

제4장 실증분석	49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49
1. 청수리 마을	49
2. 산양리 마을	51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53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53
2. 확인적 요인 분석	57
제3절 연구 가설의 검증	60
1. 청수리 마을	60
2. 산양리 마을	62
제5장 결론	64
제1절 연구의 요약	64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6
1. 연구의 의의	66
2. 연구의 한계	68
【참고 문헌】	69
【설문지】	79
【ABSTRACT】	83

표 목 차

〈표 2-1〉 ‘계획행동이론(TPB)’ 관련 선행연구	9
〈표 2-2〉 ‘지속가능한 관광’ 의 개념	15
〈표 2-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 개념	16
〈표 2-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 원칙	18
〈표 2-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 기준 및 빈도수	20
〈표 2-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 기준 및 설명	21
〈표 2-7〉 ‘계획행동이론(TPB)’ 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24
〈표 2-8〉 ‘계획행동이론(TPB)’ 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26
〈표 3-1〉 본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36
〈표 3-2〉 ‘태도’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6
〈표 3-3〉 ‘주관적 규범’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7
〈표 3-4〉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7
〈표 3-5〉 ‘행동의도’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8
〈표 3-6〉 ‘참여 행동’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8
〈표 3-7〉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39
〈표 3-8〉 청수영농조합법인 매출액	40
〈표 3-9〉 반딧불이 체험 시 사전교육 내용	40
〈표 3-10〉 조사 대상지역 선정 기준	41
〈표 3-11〉 청수리 마을 사업 추진 연혁	44
〈표 3-12〉 청수리 마을 조사 대상 표본 추출 수	44
〈표 3-13〉 산양리 마을 사업 추진 연혁	46
〈표 3-14〉 산양리 마을 조사 대상 표본 추출 수	47
〈표 3-15〉 자료 수집 방법	48
〈표 3-16〉 자료 분석 방법	48
〈표 4-1〉 청수리 마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0
〈표 4-2〉 산양리 마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52
〈표 4-3〉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54
〈표 4-4〉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54

<표 4-5>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55
<표 4-6>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56
<표 4-7>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57
<표 4-8>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57
<표 4-9> 측정모형 적합도(청수리 마을)	58
<표 4-10>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58
<표 4-11> 측정모형 적합도(산양리 마을)	59
<표 4-1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59
<표 4-13> 측정모형 적합도(청수리 마을)	60
<표 4-14> 청수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61
<표 4-15> 측정모형 적합도(산양리 마을)	62
<표 4-16> 산양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63

그 립 목 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4
<그림 2-1> Fishbein&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 모형	6
<그림 2-2> Ajzen의 계획행동이론(TPB)	8
<그림 2-3> 전통적인 관광개발 방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식	18
<그림 2-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구하는 원칙 측면	19
<그림 3-1> 연구 모형	29
<그림 3-2> 청수리 마을 위치	42
<그림 3-3> 청수리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	43
<그림 3-4> 산양리 마을 위치	45
<그림 3-5> 산양큰엉꽃(산양꽃자왈) 모습	46
<그림 4-1> 청수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61
<그림 4-2> 산양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6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연구원, 2004).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Yu et al, 2011). 그 중 정부나 지자체 개발 참여도 중요하지만(임화순·고계성, 201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정승훈, 2019). 이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관광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광익 외, 2002).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Lee, 2013; 당약함, 2021)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주민이 관광개발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Zhang et al, 2013).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Sanja Obradovic et al, 2021).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행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적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유광민 외, 2007; 오정학 외, 2009). 그러나, Pearce et al(1996)은 '사회적교환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 하는데 있어 편익과 비용 이외에 가치, 규범, 믿음 등의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사회적교환이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유광민 외, 2007 재인용).

이에 관광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관광학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오민정, 2022). 관광학 분야에서 기존에 적용되어 온 '계획행동이론(TPB)'은 주로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재)방문의도, 참여의도, 여행의도, 이용의도, 구매의도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 적용되어 왔으나(오민정, 2020), 최근에는 관광학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 참여의도 및 행동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학 분야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고진숙 외, 2017). 아울러 국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민환·이충기,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성공적인 중요한 요소(Lee, 2013; 당약함, 2021)로 작용하는 바, 이러한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는 중요하다(Obradovic et al, 2021).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이론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한경면 중산간 지역의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할당 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내 각각 20세 이상의 12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이와 함께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22년 10월 22일부터 11월 03일까지로 총 13일 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총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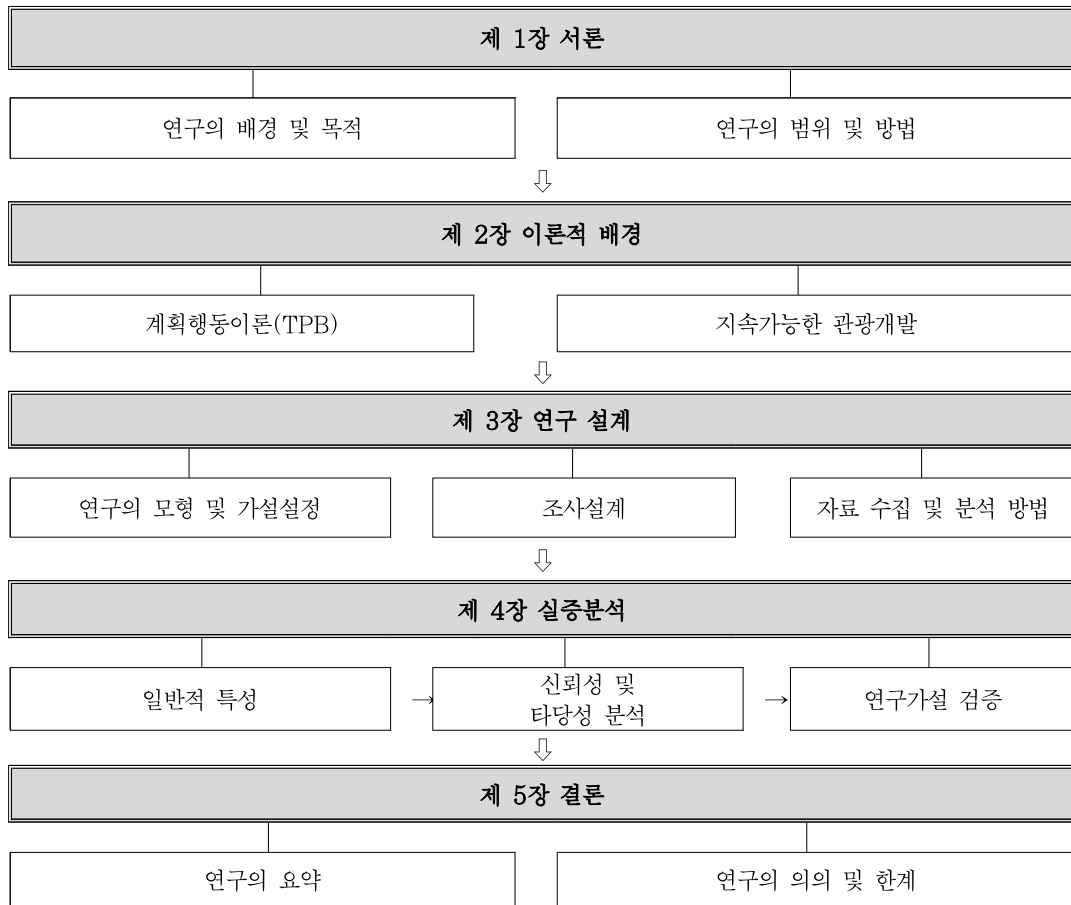
제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 모형의 토대가 되는 '계획행동이론(TPB)'에 관한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주요 변수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도 고찰하였다.

제 3장 연구 설계에서는 앞서 고찰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제시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 4장 실증분석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AMOS 26 graphics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장 결론에서는 앞서 실증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요약, 연구의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 및 방법을 그림으로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모형의 토대가 되는 ‘계획행동이론(TPB)’에 관한 개념 및 구성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획행동이론(TPB)’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합리적 행동이론(TRA)’에 관한 개념 및 구성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주요 변수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관한 개념 및 원칙, 기준 등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1절 계획행동이론

1. 합리적 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1) ‘합리적 행동이론’의 개념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Fishbein&Ajzen이 제시한 이론으로(김화, 2008), ‘기대가치이론’을 근간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김홍범·윤진영·이재형, 2012).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인간의 사고 과정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오민정, 2020)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고, ‘행동의도’는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유순근,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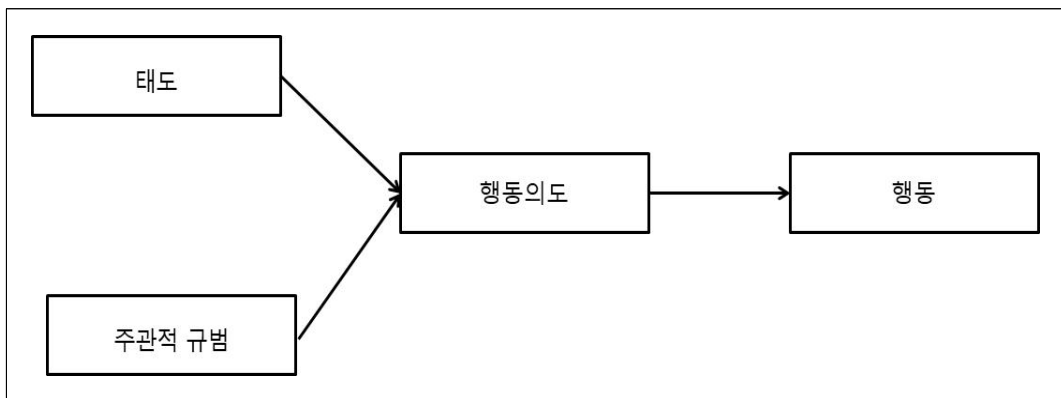
즉, 개인이 수행한 행동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 할수록, 그리고 그 행동 결과에 대해 타인들이 지지한다고 생각할수록(이학식·김영, 2000) 그 행동을 수행 할 의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김홍범·윤진영·이재형, 2012).

이러한 견해는 다수의 후속 연구들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지지 되었으며(이학식·김영, 2000), 이는 ‘계획적 행동이론(TPB)’과 ‘기술수용모델’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김형준·이상주·김정훈, 2020).

특히,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이정기 외, 2013).

그러나 ‘합리적 행동이론(TRA)’은 결단력이나 의지가 부족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Ajzen, 1991). 다시 말해 시간 및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간의 의지로만 행동을 통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합리적 행동이론(TRA)’으로 이러한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조대우·환경연, 2001).

이에 인간의 비인지적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인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한 ‘계획행동이론(TPB)’이 제안되었다(김효연·류기상·류형서, 2016).



자료: 이정기 외, 2013

〈그림 2-1〉 Fishbein&Ajzen의 ‘합리적 행동이론’ 모형

2) 합리적 행동이론의 구성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 행동이론(TRA)’에서의 ‘행동’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받고,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선 ‘합리적 행동이론(TRA)’의 선행변수인 ‘태도’는 개인의 수행한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과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이 되며, 어떤 대상(사람, 사물, 사안)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조대우·환경연, 2001).

즉, 특정행동이 특정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신념인 ‘행동 신념’(김상미·김상오, 2012)과 특정 행위결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 다시 말해 특정 행위결과의 중요한 정도인 ‘행동 평가’에 의해 ‘태도’가 결정된다고 한다(박중환·주현식, 2009).

두 번째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에 의해 결정이 되며(정혜선 외, 2003), 특정한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타인들의 지각된 기대를 의미한다(유순근, 2018 재인용).

즉, Fishbein&Ajzen(1975)에 의하면, 지각된 특정 준거집단의 기대를 의미하는 ‘규범적 신념’과 그 기대에 순응하려는 ‘순응동기’에 의해 ‘주관적 규범’이 결정된다(전형구·김민수, 2007 재인용).

세 번째로 ‘행동의도’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로(허진영·최헌혁, 2008), ‘합리적 행동이론(TRA)’에서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선행변수로 가정하고 있다(배병렬, 1994).

이들 변수 간의 관계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되었다(김상미·김상오, 2012).

현용호(2012)의 ‘합리적 행동이론(TRA)’를 적용한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행동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대구세계육상권 대회의 ‘참가행동의도’에 유의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세계육상권 대회의 ‘참가행동의도’는 실제 ‘참가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두영·고민환(2020)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적용한 한국인의 적개심이 일본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도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행동이론(TRA)’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의 문제와 한계가 제기 되었다(유진·김영재, 1999).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만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적받았다(손용곤·이병관, 2012). 즉, 현실 상황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제 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손정기·한상일, 2016).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태도’ 및 ‘주관적 규범’ 이 모두 긍정적일지라도(이정기 외, 2013), 그와 같은 행동을 수행할 기회 및 자원이 없는 경우 실제 행동을 취하는데 제약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다(이홍재, 2013). Ajzen(1985)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인간의 비인지적 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인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하여 ‘계획행동이론(TPB)’을 제안하였다(이정기 외,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행동이론(TRA)’을 보완한 ‘계획행동이론(TPB)’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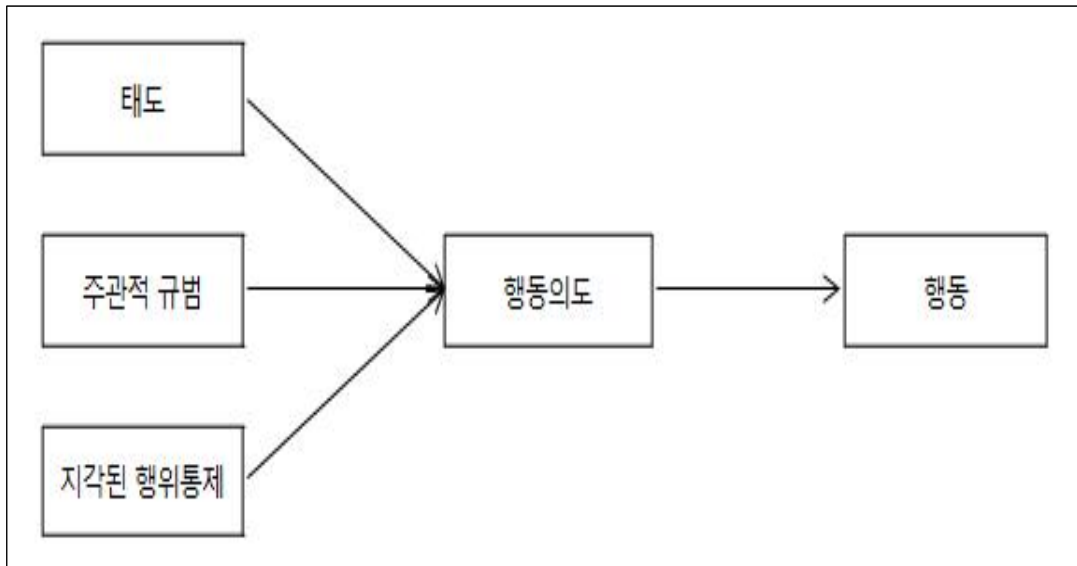
2. 계획행동이론 개념 및 구성요인

1) 계획행동이론 개념

‘계획행동이론(TPB)’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심리적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이론으로(정지형·홍석호·장수미, 2018), Ajzen&Fishbein의 ‘합리적 행동이론(TRA)’에서 보완된 이론이다(유순근, 2018).

다시 말해 ‘계획행동이론(TPB)’은 ‘합리적 행동이론(TRA)’에 ‘지각된 행위통제’를 추가해 보완된 이론이다(김형준·이상주·김정훈, 2020).

‘계획행동이론(TPB)’은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는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Ajzen, 1991).



자료: 이정기 외, 2013

〈그림 2-2〉 Ajzen의 계획행동이론(TPB)

‘계획행동이론(TPB)’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용성이 검증되면서 관광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오민정, 2020).

권미영(2014)의 연구에서 호텔 한식당 이용 고객들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호텔 한식당 방문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호텔 한식당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웅(2015)의 연구에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해양스포츠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해양스포츠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객들의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활동에서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있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 지원하려는 주민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gag&Colmekcioglu(2020)의 연구에서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친환경 호텔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는 친환경 호텔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려는 의도는 실제 친환경 호텔 예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nwanitdumrong&Chen(2021)의 연구에서 태국 해안 관광객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계획행동이론(TPB)'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권미영(2014)	호텔 한식당 이용 고객들이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호텔 한식당 방문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호텔 한식당 소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권웅(2015)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는 해양스포츠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해양스포츠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ang et al(2018)	관광객들의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활동에서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있는 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내용
Erul et al(2020)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 와 '주관적 규범' ,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 지원하려는 주민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Agag&Colmekcioglu(2020)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친환경 호텔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는 친환경 호텔 '방문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환경 호텔을 방문하려는 의도는 실제 친환경 호텔 예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Panwanitdumrong &Chen(2021)	태국 해안 관광객의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동의도'는 책임 있는 환경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연구자 작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계획행동이론 구성요인

'계획행동이론(TPB)'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 '행동'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정진, 2013). 그러나 '계획행동이론(TPB)'에서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는 '행동의도'이다(Aydina&Aydinb, 2022).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등 세 개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구성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태도

Fishbein&Ajzen(1980)은 '태도'를 대상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일관적으로 반응하려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학습에 이루어진다고 하였다(강은주, 2021). 다시 말해, '태도'는 관심 있는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지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Tajeddini et al, 2021). 이학식·김영(2000)은 '행동'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응하려는 '태도'는 반응하려는 대상에 대해 호감이 형성될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행동의도’가 커질수록 실제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였다(유동숙, 2017). 이로 인해 ‘태도’는 ‘계획행동이론(TPB)’에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이충기·류재숙·고성규, 2017). 이에 행동에 대한 예측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태도’를 중요한 핵심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임수진·한규석, 2009). 특히, 관광학 분야에서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Obradović et al, 2021). 이에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관광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이다(XueQinet et al, 2021). 20세기 초에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태도-행동 간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태도-행동 간의 낮은 상관관계로 태도-행동 간의 연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이재석·이충재, 2010).

이에 Fishbein&Ajzen(1975)은 기존의 대상에 대한 ‘태도’ 대신 대상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우호도 평가나 감정의 정도로서 ‘태도’를 측정하게 되었다(권미영, 2012 재인용). 여기서 ‘태도’는 특정행동이 특정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신념인 ‘행동 신념’(김상미·김상오, 2012)과 특정 행위 결과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행동 평가’로 이루어진다(박중환·주현식, 2009). 즉, ‘태도’는 개인의 ‘행동 신념’과 수행한 행위 결과에 대한 ‘행동 평가’의 곱으로 구성 된다(김우곤·박병관, 1997). 다시 말해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예측될 경우 이에 대한 ‘태도’도 호의적인 ‘태도’로 형성되는 반면,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이 부정적으로 예측되는 경우 이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인 ‘태도’로 형성된다고 하였다(Fishbein&Ajzen, 198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주관적 규범

Ajzen(1991)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인지된 사회적 압력’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주관적 규범’은 개인과 가깝고, 중요하며,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친한 친구, 동료 등의 집단이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 인식으로 볼 수 있다(Han et al, 2010). 이에 Fishbein&Ajzen(1975)는 지각된 특정 준거집단의 기대를 의미하는 ‘규범적 신념’과 그 기대에 순응하려는 ‘순응동기’로 ‘주관적 규범’이 구성된다고 하였다(전형구·김민수, 2007 재인용). 다시 말해 ‘주관적 규범’은 개인의 주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강은주, 2021). 즉, 개인의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가해지는 사회적인 압박에 대해 개인의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충기·고성

규·임성희, 2017). '주관적 규범'은 '계획행동이론(TPB)'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었다. Hsu&Sheu(2010)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그린 호텔 이용객의 호텔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해란·이충기(2015)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계획행동이론(TPB)'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 중 '주관적 규범'이 설명력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차동필, 2005; 이정기 외, 2013).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인 Wu&Chen(2016)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jzen(1991)은 '행동의도'를 예측함에 있어 '계획행동이론(TPB)'을 구성하는 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중요성은 행동과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충기·류재숙·고성규(2017)도 개인의 '행동의도'는 행동 특성과 상황에 따라 '계획행동이론(TPB)'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인(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의 중요도가 달라 질 수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이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용이하게 또는 얼마나 쉽거나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김수, 2018). 이러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통제 신념'과 '통제요인의 지각된 영향력'으로 구성되며, '통제 신념'은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자원을 얼마나 용이하게 통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개인이 갖는 믿음을 의미하는 한편, '통제 요인의 지각된 영향력'은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박선주, 2016). 다시 말해 '지각된 행위통제'는 어떤 사람의 행동 수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을 의미한다(East, 1993; Taylor&Todd, 1995; 이준엽·안태기, 2007).

'지각된 행위통제'는 개인의 사업 역량과 관련 있으며(안승혁·윤순진, 2021), '계획행동이론(TPB)'을 구성하는 세 가지 변인 중 '주관적 규범'이 설명력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차동필, 2005; 이정기 외, 2013).

론(TPB)'을 활용한 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행위통제'가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의도' 또는 '지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인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터키 대도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 지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승혁·윤순진(2021)의 연구에서도 농촌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농촌관광 사업 참여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는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미래의 목표 행동에 대한 몰입(commitment)으로서 실제 행동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오민정, 2020). 다시 말해 '행동의도'는 어떠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인 선행요인으로서 신념에 의해 태도가 형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강은주, 2021). 이로 인해 '행동의도'는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단기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추정 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Sheeran, 2002; 고봉호, 2017 재인용). Ajzen(1991)에 의하면 '행동의도'는 개인의 예상 또는 계획된 미래 행동 또는 행동하려는 의지로(Erul, 2018),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며, '행동의도'가 커질수록 실제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였다(유동숙, 2017).

이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다양한 선행연구(고진숙·서영수, 2017; Erul, 2018; Erul et al, 2020; Wang et al, 2020; Lee et al, 2022)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로 인해 일부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선행연구(고진숙·서영수, 2016; 정남식·김용근, 2017; Wu&Chen, 2018; Gao&Chen, 2022)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동의도'가 '행동'과 다를 수 있다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Hsu&Huang, 2012; Erul,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본 연구의 변수로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제2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1970년대 기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김도희, 1998). 이에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당약함, 2021), 1987년에는 국제연합(UN)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김도희, 1998; 당약함, 2021). 여기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부여하고, 동시에 현 세대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정의되었다(김도희, 1998; 당약함, 2021).

아울러 본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관광분야에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세계 관광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마닐라선언에서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이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부터이다(유정우, 2006).

이후 1998년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관광현장을 발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김주년, 2004).

WTO(1993)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생태적 과정,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 다양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심미적인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원희, 2005).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도희(1998)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보호 및 보전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에도 관광객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근호(2001)는 미래 세대에도 현 세대와 동일하게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잘 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까지 충족 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정의하였다.

오정준(2002)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관광으로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 관광객에게는 관광의 기회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지역사회에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사회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관광'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용국(2000)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관광객의 환경 의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 하였다.

〈표 2-2〉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구분	정의
WTO (1993)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문화의 보전, 생태적 과정,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생물 부양체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심미적인 욕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자원을 관리하는 것
김도희(1998)	환경보호 및 보전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에도 관광객에게 관광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
여근호(2001)	미래 세대에도 현 세대와 동일하게 관광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잘 보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까지 충족 될 수 있도록 관광대상을 관리하는 것
최용국(2000)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및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관광객의 환경 의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것
오정준(2002)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관광으로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 관광객에게는 관광의 기회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지역사회에는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사회 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한 관광

자료: 연구자 작성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당약함, 2021),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홍충렬·김원진, 2004).

이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정승훈, 2014), 연구자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유정우, 2006).

김도희(1998)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적정 개발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보전을 고려함으로써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관광경험의 질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개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정우(2006)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관광대상, 관광지, 관광객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고한익(2010)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고취하면서 현재 관광객과 관광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개발’이라고 하였다.

당약함(2021)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관광 자원(문화 및 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는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표 2-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

구분	정의
김도희(1998)	적정 개발을 통하여 환경보호와 보전을 고려함으로써 관광자원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는 관광경험의 질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는 관광개발 활동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
유정우(2006)	현 세대 및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관광대상, 관광지, 관광객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개발 방식
고한익(20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하고 고취하면서 현재 관광객과 관광지역의 필요에 부응하는 개발
당약함(2021)	관광 자원(문화 및 생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는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

자료: 연구자 작성

앞서 연구자들의 제시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을 종합하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생태·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을 관광에 적용하려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이원희, 2005).

우선, 관광개발과 환경 보전은 상반되는 개념으로(조중현·김용근, 2014; 심원섭, 201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시 경제적 편익의 감소가 우려되는 문제가 제기된다(Butler, 1992; 김성일·박석희, 2001 재인용).

두 번째로는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도덕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이원희, 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김도희, 1998) 지역 사회 전체에 편익을 가져다 주는(김남조, 2020) 바람직한 형태의 관광(강신겸 외, 2004)개발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아닌 관광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김성일·박석희, 2001).

또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욕구 충족을 전제(이화춘, 2013; 김문수 외, 2017)로 해야 하는데 미래 세대의 욕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획득은 물론이고, 현재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선호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연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파악하더라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욕구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도 뒤따르게 된다(김성일·박석희, 2001, 재인용).

이에 Milne(1998)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도록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김대일, 2001 재인용).

다시 말해 Cohen(1972)의 지적과 같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기존 관광에서 기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관광지와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신겸 외, 2004 재인용).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김대관, 2001; 정승훈 2004; 이원희, 2005)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과도한 관광개발을 지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김대관(2001), 정승훈(2004), 이원희(2005)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지역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지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두어 과도한 관광개발을 지양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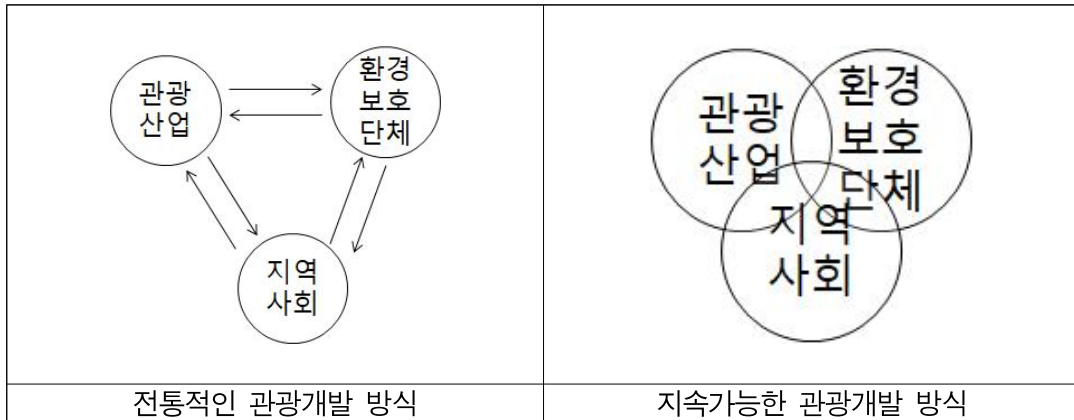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 및 기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궁극적으로 크게 1) 환경적 측면, 2) 사회·문화적 측면,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이원희, 2005).

이러한 틀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목표가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김대일(2001)

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목표는 첫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며, 둘째, 관광자에게 양질의 경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및 관광객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정우(2006)는 기존 전통적인 관광개발 방식과 달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는 주요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 2-3〉 전통적인 관광개발 방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방식

자료: 한국관광공사(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이러한 맥락에서 1996년 WTTC, WTO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원칙이 제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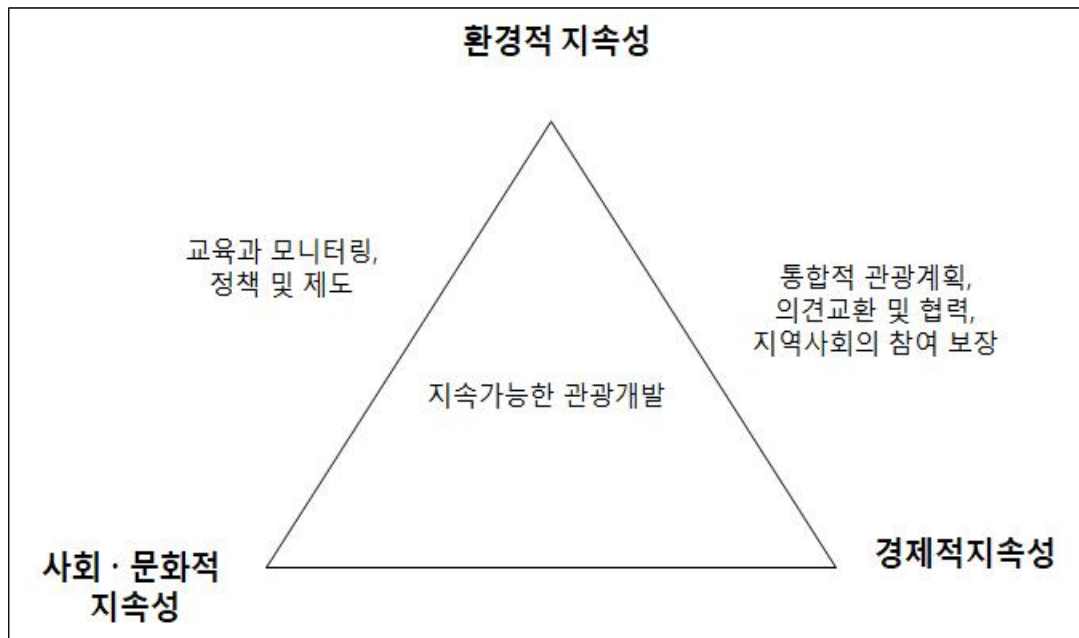
〈표 2-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

1. 관광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관광은 생태계를 보존 및 보호하고, 회복에 기여 해야 한다.
3. 관광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패턴에 기초하여야 한다.
4. 관광은 평화 및 개발 그리고 환경보호와 상호관계를 맺어야 한다.
5.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6. 관광개발 과정에서 환경보호는 절대적인 요소로 여겨져야 한다.
7. 관광개발 문제는 지역수준에서의 계획결정 과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해야 한다.
8. 정부는 관광지와 관광객에게 영향을 주는 자연재해에 대해 경고해야 한다.
9. 관광은 원주민과 여성의 고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0. 관광개발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인식, 문화, 일체감이 반영되어야 한다.
11. 관광산업에 환경보전 국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자료: WTO(1997)

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원칙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추구하는 측면인 1) 환경적 측면, 2) 사회·문화적 측면, 3)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발 원칙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역할 및 행동이 제시되고 있다(강신겸 외, 2004).

아울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중요한 요소로는 1) 교육과 모니터링, 2) 정책 및 제도, 3) 통합적 관광계획, 4) 의견교환 및 협력, 5) 지역사회의 참여 보장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성일·박석희, 2001).



자료: 유정우(2006)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그림 2-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추구하는 원칙 측면

이에 국내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기준'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다(유정우, 2006).

김성일·박석희(2001)는 1990년 이후 발표된 '지속가능한 관광'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국제회의와 선언문 내용들을 항목으로 목록화하여 측정 빈도수를 조사해 14개 지표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2-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 및 빈도수

구분	기준	빈도 수
1	경제적 지속성	19
2	사회·문화적 지속성	21
3	환경적 지속성	50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29
5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12
6	전문적인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14
7	대안상품 개발	6
8	모니터링 연구	20
9	지역주민의 삶의 질	10
10	관광객 안전	9
11	정보교환	5
12	정부 정책과 제도	22
13	지역 참여	7
14	협력	25

주: 지속가능한 관광 정의, WTO 원칙, TC/WWF 원칙, 관광권리장전, 헤이그 선언, 지속가능한 관광행동 강령, 지속가능한 관광헌장, 관광의제 21, 말리선언, 란자로테 회의 등의 내용에서 언급된 항목들을 조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기준을 도출한 자료임

자료: 김성일·박석희(2004)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기준 지표로는 1) 경제적 지속성, 2) 사회·문화적 지속성, 3) 환경적 지속성,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5)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6) 전문적인 양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7) 대안상품 개발, 8) 모니터링 연구, 9) 지역주민의 삶의 질, 10) 관광객 안전, 11) 정보교환, 12) 정부 정책과 제도, 13) 지역 참여, 14) 협력 등의 제시되었다.

〈표 2-6〉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 및 설명

기준	설명
경제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관광은 사회·경제적 편익이 지속적으로 관광지역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 및 제공되는 관광이다.
사회·문화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산업', '관광객', '지역사회' 등 간의 갈등을 감소시켜 생산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관광이다.
환경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미래 세대의 자원 이용 기회를 보장 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인 관광객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는 관광이다.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통합적 관광계획 수립으로 관광 자원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편익과 분배, 관광과 다른 경제 부문과의 통합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공공인식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 환경윤리 의식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양성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훈련	관광산업의 양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 관련자 전문 훈련과 양성 교육이 필요하다.
대안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관광의 개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된 관광을 이룩한다.
모니터링 연구	지속가능한 관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환경·문화·경제적 영향)을 통하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자연환경과의 공존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어야 하며, 관광 대상지의 사회문화부흥을 가져와야 한다.
관광객 안전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관광객에게 국가 및 지역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정보교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국가 간, 지역 간 정보 및 기능, 기술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정책과 제도	지속가능한 개발 기본원칙을 토대로 관광편익 및 비용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지역 참여	관광계획 및 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익이 지역 사회에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력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정부' 와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지방정부'와 '관광산업 및 관광 관련 기관' 간에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자료: 김성일·박석희(2004) 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14개 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지표로는 1) 경제적 지속성, 2) 사회·문화적 지속성, 3) 환경적 지속성,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8) 모니터링 연구 14) 협력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4개 지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6개의 지표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오늘날 지속가능한 개발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관광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토연구원, 2004)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는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Yu et al, 2011). 그 중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 참여도 중요하지만(임화순·고계성, 201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을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로 보았다(정승훈, 2019). 이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관광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조광익 외, 2002).

특히,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관광개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하여 호의적 및 비호의적인 기대 또는 반응으로(장미경, 2005),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호적인 지지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윤유식, 2009).

또한, 관광개발을 지역개발 수단으로서 단순하게 적용하게 되면, 환경문제의식 유발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이 양분되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윤병국·최승일, 2011).

이에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인식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회적교환이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유광민 외, 2007; 오정학 외, 2009). AP(1992)에 따르면 ‘사회적교환이론’은 상호작용하는 개인들 간 또는 집단들 간에 자원의 교환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이론이다(윤유식, 2009 재인용).

그러나, 유정민 외 (2007)은 ‘사회적교환이론’이 가정하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간의 행동을 결정 하는데 있어 편익과 비용 이외에 가치, 규범, 믿음 등의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사회적교환이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관광학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관광학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오민정, 20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획행동이론(TPB)’ 선행연구와 함께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계획행동이론(TPB)’은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오민정, 2020), 이에 따라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었다. 관광학 분야에서도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관광객의 관광 행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며(허운주, 2015). 생태관광, 공정관광, 음식관광, 녹색관광 등에서 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계획행동이론(TPB)’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손정기·남장현, 2016).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관광객의 관광 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태숙·김철원(2015)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공정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은 공정행동 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adat(2015)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요르단 호텔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르단 관광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요르단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요르단의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요르단의 실제 방문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환·이충기(2019)는 ‘계획행동이론(TPB)’에 반일인식 변수를 추가하여 일본관광과 관련이 있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본관광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반일인식은 일본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일본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광 ‘행동의도’는 실제 일본관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필·류재숙(2022)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관광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친환경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 관광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친환경 관광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이태숙·김철원(2015)	공정관광을 경험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정관광 행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공정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조절'은 공정행동 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Ziadat(2015)	요르단 호텔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요르단 관광 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요르단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요르단의 '재방문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요르단의 실제 방문 관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고민환·이충기(2019)	반일인식 변수를 추가하여 일본관광과 관련이 있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일본관광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반일인식은 일본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일본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관광 '행동의도'는 실제 일본관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임재필·류재숙(2022)	MZ세대를 대상으로 친환경 관광행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친환경 관광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친환경 관광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연구자 작성

2.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관광학 분야에서 기존에 적용되어 온 '계획행동이론(TPB)'은 주로 관광의 주체인 관광객의 행동의도와 관련하여 (재)방문의도, 참여의도, 여행의도, 이용의도, 구매의도 등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으로 적용되어 왔으나(오민정, 2020 재인용), 최근에는 관광학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 참여의도 및 행동과 관련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주민참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진숙·서영수(2016)은 '계획행동이론(TPB)'에 사회적 자본 변수를 추가하여 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주(2016)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은 '계획행동이론(TPB)'에 '공동체 활동' 변수를 추가하여 남해 다랑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랑이 논에 대한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다랑이 논 보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공동체 활동'은 다랑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Chen(2018)은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은 '계획행동이론(TPB)'에 COVID-19 위험 인식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관광 추진 의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통제'는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이정기 외, 2013).

그러나 한편으로는 '행동의도'가 '행동'과 다를 수 있다고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Hsu&Huang, 2012; Erul, 2018). 이에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고진숙·서영수(2017)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은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농촌관광개발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은 중국 남서부의 보호지역과 티베트 고원의 삼강원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보전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환경 보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생태 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22)는 계획행동이론에 지속가능한 지능의 역할 변수를 추가하여 발달 보전에 관심 있는 제주 도민을 대상으로 발달 보전에 대한 행동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지속가능 지능이 높을 수록 발달 보전에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달 보전에 참여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가능 지능이 높은 주민일수록 발달 보전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은 '행동' 의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주민참여 분야 선행연구

연구자	내용
고진숙·서영수(2016)	'사회적 자본' 변수를 추가하여 마을권역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박선주(2016)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정남식·김용근(2017)	'공동체 활동' 변수를 추가하여 남해 다랑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랑이 논에 대한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랑이 논 보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공동체 활동'은 다랑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자	내용
고진숙·서영수(2017)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농촌마을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은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농촌관광개발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u&Chen(2018)	생태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지역주민들의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rul(2018)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적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을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Erul et al(2020)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관광개발을 지원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Wang et al(2020)	중국 남서부의 보호지역과 티베트 고원의 삼강원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원주민의 보전 행동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환경 보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시 생태 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Gao&Chen(2022)	'COVID-19 위험 인식' 변수를 추가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관광 추진 의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식된 행동통제'는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Lee et al(2022)	'지속가능한 지능'의 역할 변수를 추가하여 발달 보전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발달 보전에 대한 행동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속가능 지능이 높을 수록 발달 보전에 긍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달 보전에 참여하려는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속가능 지능이 높은 주민일수록 발달 보전을 사회적 의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은 '행동'의 욕에 긍정적으로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 연구자 작성

위와 같이 관광학에서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들의 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국내 관광분야 연구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다(고진숙 외, 2017).

아울러 국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 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고민환·이충기,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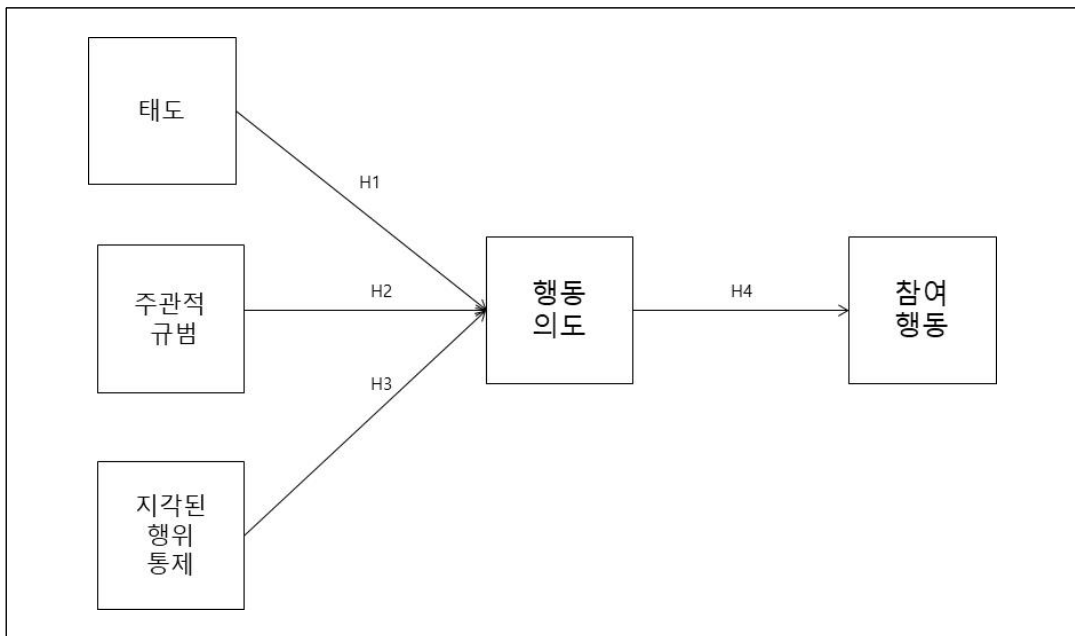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 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해보고자 한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의 모형 및 가설 설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모형

2. 가설 설정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을 토대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6)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태도'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주(2016)의 연구에서 보호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보호지역 지정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의 연구에서 남해 다랑이 마을 주민들의 다랑이 논 보존에 대한 '태도'는 다랑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숙·서영수(2017)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태도'는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Chen(2018)의 연구에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관광개발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관광개발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태도'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의 연구에서 산림치유 관광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는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2022)의 연구에서 발담 보전에 대한 '태도'는 발담 보전에 참여하려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태도'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례대상 마을별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6)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의 연구에서 남해 다랑이 마을 주민들의 다랑이 논 보존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다랑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진숙·서영수(2017)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농촌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규범'은 관광개발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주관적 규범'은 관광개발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의 연구에서 산림치유 관광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주관적 규범'은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유진(2022)의 연구에서 지역주민의 '주관적 규범'은 제주 꽃자왈 보존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규범'과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사례대상 마을별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6)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남식·김용근(2017)의 연구에서 남해 다랑이 마을 주민들의 다랑이 논 보존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다랑이 논 보전 관리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u&Chen(2018)의 연구에서 생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생태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된 행위통제'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각된 행위통제'는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o&Chen(2022)의 연구에서 산림치유 관광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지된 행위통제'는 산림치유 관광에 대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각된 행위통제와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사례대상 마을별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4)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

고진숙·서영수(2017)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행동의도'는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참여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2018)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는 관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ul et al(2020)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지원에 대한 '행동의도'는 관광개발 지원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 국립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행동의도'는 보호지역의 보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4'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사례대상 마을별 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참여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제2절 조사 설계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과 그리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개념을 본 연구에 맞게 재정의 하였다.

1) 태도

'태도'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태도는 특정행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긍정·부정적 평가의 정도 또는 행동 수행 결과에 대한 감정 상태"라고 말했다.

오민정(2020)에 따르면 "태도는 행동에 대한 주관적 판단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제시했다.

'태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태도'는 특정행동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의 행위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정기 등(2014)에 따르면 ‘특정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라고 제시했다.

오민정(2020)에 따르면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행위자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 인식 정도’로 정의하였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Ajzen(1991)에 따르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시간적 요인 등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잘 통제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도”라고 하였다.

이정기 외(2014)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특정행동을 하는데 있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신념이라고 하였다.

오민정(2020)은 “지각된 행위통제를 특정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인을 토대로 특정행동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쉽게 또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념의 정도”라고 말했다.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위자가 특정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요인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얼마나 잘 통제하여 성공적으로 특정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위통제’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시간적 요인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김민철·최용복·부창산(2014)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민정(2020)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행동 수행을 위한 지각된 강도이자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제시했다.

유동숙(2017)에 따르면 “행동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감정적 반응의 결과물로서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견해 등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에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말했다.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행동의도’는 행동 수행을 위해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지속가능한 관광 참여를 위해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5) 참여 행동

‘참여 행동’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서유영(2012)에 따르면 “참여 행동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희동(2015)에 따르면 “참여 행동은 지역 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참여 행동’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 정의를 종합하면 ‘참여 행동’은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 행동’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표 3-1〉 본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정의
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주관적 규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 인식 정도
지각된 행위통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에 참여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제·시간적 요인을 얼마나 지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여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
행동의도	지속가능한 관광 참여를 위해 참여할 계획이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참여 행동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행동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는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문항 구성은 크게 ‘1) ‘태도’, ‘2) ‘주관적 규범’, 3) ‘지각된 행위통제’, 4) ‘행동의도’, 5) ‘참여 행동’, 6)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6개로 구성하였다.

1) 태도

‘태도’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Li&Nakatsuka(2020), Huang et al(2021), Gao&Chen(2022)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2〉 ‘태도’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태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Likert 5점 척도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Li&Nakatsuka(2020), Huang et al(2021), Gao&Chen(202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정남식·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3〉 ‘주관적 규범’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주관적 규범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Liket 5점 척도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고진숙·서영수(2017),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한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정남식·김용근(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Li&Nakatsuka(2020), Gao&Chen(2022), Huang et al(2021)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4〉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지각된 행위 통제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Liket 5점 척도	Ajzen(2002), 고진숙·서영수(2016), 박선주(2016), 정남식·김용근(2017), Wu&Chen(2018), Erul(2018), Erul et al(2020), Li&Nakatsuka(2020), Gao&Chen(2022), Huang et al(202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4) 행동의도

‘행동의도’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5〉 ‘행동의도’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행동의도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Liket 5점 척도	고진숙·서영수(2017),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5) 참여 행동

‘참여 행동’ 요인 관련 설문지 문항은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Erul et al(2020), Huang et al(2021)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총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Like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6〉 ‘참여 행동’ 요인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참여 행동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Liket 5점 척도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Erul et al(2020), Wang et al(2020), Huang et al(2021)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6)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설문지 문항은 김주경 외(2015), 박선주(2016), 고진숙·서영수(2016), 고진숙·서영수(2017), 정남식·김용근(2017), 김수(2018), 정보현(2019), 권유

진(2022)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성별, 결혼유무, 출생지역,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거주기간등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으로는 '명목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3-7〉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설문문항 및 측정방법

변수	설문문항	측정방법	선행연구
행동	성별, 결혼유무, 출생지역, 연령, 학력, 소득, 직업, 거주기간	명목척도	김주경 외(2015), 박선주(2016), 고진숙·서영수(2016), 고진숙·서영수(2017), 정남식·김용근(2017), 김수(2018), 성보현(2019), 권유진(2022)

제3절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지역

제주지역은 쇼핑, 식음, 숙박, 문화 등의 관광산업을 기반산업으로 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김보람, 2022), 지속가능 관광의 중요성이 보다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최광웅·서용건, 2019). 이에 본 연구는 대상 지역으로 '제주지역'을 선정하였다.

제주지역 중에서도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한경면 중산간 지역에 소재한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 두 곳의 대상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결정하는 영향 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준을 구성하는 14개 지표 중에서도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지표인 1) 경제적 지속성, 2) 사회·문화적 지속성, 3) 환경적 지속성, 4)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8) 모니터링 연구, 14) 협력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조사, 인터넷 자료조사,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 지속성' 기준 적용 결과, '청수리 마을' 매출액¹⁾은 2021년 기준 8억 4,862만 원으로 2018년(3억 9,263만원)에 비해 약 4억 5,599만 원 증가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산양리 마을'의 경우 2022년 2월에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왓)'을 개장함에 따라 매출액을 확보 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 3-8〉 청수영농조합법인 매출액

구분	2018	2019	2020	2021
매출액	3억 9,263만 원	6억 855만 원	7억 3,275만 원	8억 4,862만 원

주: '청수영농조합법인'은 청수리 마을 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마을기업임

자료: 사람인 '청수영농조합법인' 재무정보

둘째, '사회·문화적 지속성' 기준 적용 결과, '청수리 마을'은 사업 초기 농촌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마을 주민 간 갈등이 있었으나, 마을 리더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 역량 강화교육을 통해 현재에는 '청수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한 '반딧불이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반딧불이 캠페인', '반딧불이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양리 마을'의 경우에는 곶자왓 지대인 마을공동 목장 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마을 공동목장 복원 및 달구지길, 곶자왓 탐방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2월에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왓)을 개장하였다. 현재에는 마을 지역주민들이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왓) 정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왓)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환경적 지속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은 마을공동목장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해 곶자왓 주변에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반딧불이를 보호·보전하기 위하여 '반딧불이 축제' 개최하는 과정에서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확인되었다.

〈표 3-9〉 반딧불이 체험 시 사전교육 내용

1. 불빛 사용 금지:손전등, 핸드폰 등
2. 긴팔, 긴바지, 운동화 착용
3. 아이들이 불빛 나오는 신발, 반짝이 신발 착용 금지
4. 진한 향수, 모기 퇴치제 사용 금지
5. 금연, 관람 시 정숙 및 촬영금지
6. 반딧불 채집 절대 금지(적발 시 퇴장 조치)

자료: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 산양큰엉곶 공식 인스타그램 토대로 작성

1) 청수리 마을 지역주민들이 모여 설립한 마을기업인 '청수영농조합법인' 매출액 기준임

넷째,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은 2022년 선정된 '제주다움복원사업'을 통하여 꽃자왈 생태 보존을 위한 백서향 군락지 복원, 꽃자왈 생태탐방로 정비, 반딧불 축제를 연계한 문화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양리 마을'은 2022년 JDC형 DMO사업 관광부문에 선정되어 '치유·힐링의 메카 산양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모니터링과 연구'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은 '제주지방기상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수리 마을' 반딧불이 생육 환경에 대한 연구를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네이버 리뷰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양리 마을'도 '청수리 마을'과 마찬가지로 네이버 리뷰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섯째, '협력' 기준을 적용한 결과, '청수리 마을'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 JDC, 제주관광공사,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지방기상청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양리 마을'은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제주시, JDC, 제주특별자치도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청수리 마을'은 '지속가능한 관광컨퍼런스' 등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우수사례로 발표되고 있는 마을로,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이후(문용철, 2014) 2010년 전국 최우수 권역 선정(농림축산식품 장관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장관상 수상, 2013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2016년 행복마을 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동상 수상, 2019년 제주마을만들기 대상 수상 등을 하였다.

〈표 3-10〉 조사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구분	청수리 마을	산양리 마을
경제적 지속성	2021년 기준 8억 4,862만 원으로 2018년(3억 9,263만원)에 비해 4억 5,599만 원 증가	2022년 02월 산양큰영꽃을 개장함에 따라 자료 확보 한계
사회, 문화적 지속성	마을리더 교육,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농촌관광에 대한 부정적 갈등 해결 →현재 마을주민 전체 반딧불이 지킴이 발대식 참여 등 추진	꽃자왈 지대인 마을공동목장 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꽃자왈 지대인 마을공동목장 복원 및 꽃자왈 탐방로 등 조성, 2022년 2월에 산양큰영꽃 개장
환경적 지속성	꽃자왈 지대인 마을공동목장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호 및 보전하기 위해 꽃자왈 주변에 농약 사용 금지	

구분	청수리 마을	산양리 마을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제주다움복원사업'을 통해 꽃자왈 생태 보존을 위한 백서향 군락지 복원, 꽃자왈 생태탐방로 정비등의 사업 계획 수립	JDC형 DMO사업 관광부문에 선정되어 '치유, 힐링의 메카 산양리 마을'이라는 주제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
모니터링 연구	제주지방기상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청수리 마을' 반딧불이 생육 환경에 대한 연구 2022년부터 시행	네이버 리뷰 등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 모니터링 시행
협력	JDC, 제주관광공사, 난대·아열대산립연구소, 제주지방기상청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JDC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청수리 마을'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45km 떨어진 한경면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문용철, 2014), 마을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3-2〉 청수리 마을 위치

'청수리 마을' 설촌 시기는 약 1,650년경으로 '청수리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남쪽에 '제주 고씨'와 '진주 강씨'가 동쪽에는 '임씨'가, 북쪽에는 '강씨'와 '고씨'가 거주하며 취락 구조를 형성하여 '설물촌'이라고 유래되었다.

취락 형성은 수원을 근거로 취락이 형성 되었으며, 취락 연대는 약 300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에 따르면 초기에는 ‘저지리’에 포함되어 있다가 분향 되어 한때 ‘청효수’로 표기 되었다가 1892년경 ‘청수리’라 칭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42년 ‘청수리’가 1구 및 2구로 행정구역이 분리되면서 1956년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산양리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은 꽃자왈 지대로, 1980년대 이전에는 소 사육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나(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 농기계가 보급·확대되면서 소 사육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는 꽃자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민동원, 2014), 꽃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을(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 활용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하고 있다.

‘청수리 마을’은 꽃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하여 꽃자왈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식물 및 동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꽃자왈 생태 탐방 프로그램’과 ‘반딧불이 축제’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3〉 청수리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

또한, ‘마을공동목장’에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보호·보전하기 위하여 ‘청수리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한 ‘반딧불이 지킴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반딧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함으로써 관광 자원 이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청수리 마을’은 2007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후(문용철, 2014) 2010년 전국 최우수 권역 선정(농림축산식품 장관상 수상), 2012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장관상 수상, 2013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2016년 행복마을 만들기 경관·환경 분야 동상 수상, 2019년 제주마을만들기 대상 수상 등을 하였다.

〈표 3-11〉 청수리 마을 사업 추진 연혁

연도	내용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마을 만들기 전국대회 동상 수상 • ICT 창조마을 시범사업 선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 옷뜨르 권역 우수권역 선정(장관상 수상)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장관상 수상 •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참가(~2015년)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형 지역공동체 사업 선정(착한 먹거리 사업)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농어촌축체지원사업 선정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선정 • R-ual-20 선정(농림수산식품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우수 권역 선정(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뜨르 권역 농촌종합개발마을 사업 추진 • 녹색농촌마을 지정, 옷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지 선정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표본추출을 위하여 한경면 사무소에 '청수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현황 자료(주민등록 기준)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청수리 마을 내 20세 이상의 12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 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표 3-12〉 청수리 마을 조사 대상 표본 추출 수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수			표본 추출 수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합계	658 (100.0)	334	324	125 (100.0)	62	63
20대	65 (9.9)	39	26	12 (9.6)	5	6
30대	62 (9.4)	26	36	12 (9.6)	6	6
40대	145 (22.0)	75	70	28 (22.4)	14	14
50대	149 (22.6)	77	72	28 (22.4)	14	14
60대 이상	237 (36.0)	117	120	45 (36.0)	23	23

주1: '청수리 마을' 주민등록인구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임

주2: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한경면사무소 내부자료

2) 산양리 마을

‘산양리 마을’은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한경면 남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 공동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그림 3-4〉 산양리 마을 위치

‘산양리 마을’은 1950년대 중반에 ‘청수리 마을’에서 분리된 마을로, 마을이 분리되면서 마을공동목장도 같이 분리되었다(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

산양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산양리’는 당초 ‘청수리’에 포함되어 있다가 1914년 3월에 ‘청수리’가 ‘1구’와 ‘2구’로 분리됨에 따라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자룡동, 다리왓동)’으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었다. 그러다가 1956년 7월 ‘청수리’ 2구에 포함되어 있던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자룡동, 다리왓동)’이 단일 부락으로 독립하면서 ‘산양리’로 칭하게 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양리 마을’은 2007년 저·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선정 이후 2011년 제주시 베스트 특화마을 사업, 2012년 농어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22년 JDC DMO사업,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3〉 산양리 마을 사업 추진 연혁

연도	내용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C DMO사업 (관광분야) •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농어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베스트 특화마을 사업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청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산양리 마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곳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하여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을 2022년 02월에 개장하였고, 현재 ‘곶자왈 생태탐방 체험프로그램’과 ‘반딧불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3-5〉 산양큰엉곶(산양곶자왈) 모습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표본추출을 위하여 환경면 사무소에 ‘산양리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현황자료(주민등록 기준)를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확보된 자료를 통해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산양리 마을' 내 20세 이상의 125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 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표 3-14〉 산양리 마을 조사 대상 표본 추출 수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수			표본 수		
	인구	남자	여자	인구	남자	여자
합계	381 (100.0)	202	179	125 (100.0)	66	59
20대	34 (8.9)	24	10	11 (8.8)	6	5
30대	30 (7.9)	14	16	10 (8.0)	5	5
40대	73 (19.2)	41	32	24 (19.2)	13	11
50대	71 (18.6)	46	25	23 (18.4)	12	11
60대 이상	173 (45.4)	77	96	57 (45.6)	27	30

주1: 산양리 마을 주민등록인구 수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임

주2: ()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환경면사무소 내부자료

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별·연령별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비확률 표본추출인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의 대상을 선택하는 판단표본추출법을 병행하였다.

박서희·고동우·김병국(2000)에 따르면, 할당표본추출법은 표본 프레임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표본들의 요소를 모집단과 구성 비율이 일치 되도록 표본추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장모나, 2021).

설문조사는 2명의 조사원이 '청수리 마을'과 '산양리 마을'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2년 10월 22일~11월 03일이며, 총 13일 간 진행되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250부이며, 불성실한 응답 및 일관성이 떨어지는 응답의 설문지가 없어 최종적으로 250부가 유효설문으로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3-15〉 자료 수집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주민
표본 추출방법	할당표본추출법, 판단표본추출법
측정방법	자기기입식 방식
조사기간	2022년 10월 22일~11월 03일
설문 수	250부(유효 표본 250부)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25.0와 AMOS 26 graphic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적으로는 가설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SPSS 25.0 프로그램을 통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측정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26 graphics 프로그램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16〉 자료 분석 방법

구분	분석 방법	분석 도구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분석	SPSS 25.0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SPSS 25.0
	확인적 요인 분석	AMOS 26 graphics
가설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AMOS 26 graphics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일반적 특성

1. 청수리 마을

본 연구 분석에서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66명(52.8%), ‘여성’은 59명(47.2%)으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 12명(9.6%), ‘기혼’ 113명(90.4%)으로 ‘기혼’ 응답자가 ‘미혼’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 지역’이라는 응답자가 87명(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주도내 타 지역’ 33명(26.4%), ‘육지지역’ 5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0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59세’ 29명(23.2%), ‘40~49세’ 28명(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이라는 응답자가 59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고졸 이하’ 51명(40.8%), ‘대학 졸업’ 15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4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2명(17.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명(1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농임축어업’이라는 응답자가 37명(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주부’ 25명(20.0%), ‘자영업’ 23명(18.4%), ‘은퇴자’ 18명(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26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7명(53.6%), ‘6~10년’ 17명(13.6%), ‘21~25년’ 15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청수리 마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6	52.8
	여성	59	47.2
결혼유무	미혼	12	9.6
	기혼	113	90.4
출생지역	현재 거주 지역	87	69.6
	제주도내 타 지역	33	26.4
	육지지역	5	4.0
연령	20~29세	7	5.6
	30~39세	11	8.8
	40~49세	28	22.4
	50~59세	29	23.2
	60세 이상	50	40.0
학력	고졸 이하	51	40.8
	전문대 졸업	59	47.2
	대학 졸업	15	12.0
	대학원 졸업	0	0.0
소득	100원 미만	30	24.0
	100원 이상 200만원 미만	22	17.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	16.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	27.2
	400만원 이상	18	14.4
직업	전문/관리직	4	3.2
	농임축어업	37	29.6
	사무직/회사원	4	3.2
	학생	3	2.4
	판매직/서비스직	11	8.8
	주부	25	20.0
	자영업	23	18.4
	은퇴자	18	14.4
	기타	0	0.0
거주기간	1~5년	2	1.6
	6~10년	17	13.6
	11~15년	14	11.2
	16~20년	10	8.0
	21~25년	15	12.0
	26년 이상	67	53.6

2. 산양리 마을

본 연구 분석에서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63명(50.4%), ‘여성’은 62명(49.6%)으로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 분포를 살펴보면 ‘미혼’ 15명(12.0%), ‘기혼’ 110명(88.0%)으로 ‘기혼’ 응답자가 ‘미혼’ 응답자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 거주 지역’이라는 응답자가 107명(85.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제주도내 타 지역’ 18명(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60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50~59세’ 26명(20.8%), ‘40~49세’ 25명(2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라는 응답자가 53명(42.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전문대 졸업’ 44명(35.2%), ‘대학 졸업’ 28명(2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38명(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명(20.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명(1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농임축어업’이라는 응답자가 45명(3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자영업’ 30명(24.0%), ‘주부’ 17명(13.6%), ‘사무직/회사원’ 8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 분포를 살펴보면 ‘26년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53명(42.4%), ‘21~25년’ 35명(28.0%), ‘16~20년’ 14명(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 산양리 마을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63	50.4
	여성	62	49.6
결혼유무	미혼	15	12.0
	기혼	110	88.0
출생지역	현재 거주 지역	107	85.6
	제주도내 타 지역	18	14.4
	육지지역	0	0.0
연령	20~29세	6	4.8
	30~39세	8	6.4
	40~49세	25	20.0
	50~59세	26	20.8
	60세 이상	60	48.0
학력	고졸 이하	53	42.4
	전문대 졸업	44	35.2
	대학 졸업	28	22.4
	대학원 졸업	0	0.0
소득	100원 미만	4	3.2
	100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	15.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6	20.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8	30.4
	400만원 이상	38	30.4
직업	전문/관리직	5	4.0
	농임축어업	45	36.0
	사무직/회사원	8	6.4
	학생	1	0.8
	판매직/서비스직	9	7.2
	주부	17	13.6
	자영업	30	24.0
	은퇴자	10	8.0
기타	0	0.0	
거주기간	1~5년	3	2.4
	6~10년	12	9.6
	11~15년	8	6.4
	16~20년	14	11.2
	21~25년	35	28.0
	26년 이상	53	42.4

제2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1.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 적합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 분석은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0.7이상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은 본 연구 모형에 적용된 '계획행동이론(TPB)'의 주요 구성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 '행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계획행동이론(TPB)'의 주요 요인 분석은 독립변수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와 매개변수인 '행동의도', 종속변수인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의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본 연구 모형의 주요 구성요인 중에서 우선 독립변수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921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chi^2=2,983.193$, $p=0.000$ 으로 p 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678에서 0.946으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91.191%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태도' 요인 Cronbach's α 값은 0.994,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Cronbach's α 값은 0.941, '주관적 규범' 요인 Cronbach's α 값은 0.950으로 모두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개념 간 타당성이 높고 측정 항목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²
태도	태도2	0.946	4.918	37.829	37.829	0.994
	태도5	0.946				
	태도3	0.941				
	태도1	0.934				
	태도4	0.928				
지각된 통제	지각된 통제3	0.879	3.573	27.485	65.314	0.941
	지각된 통제4	0.841				
	지각된 통제2	0.839				
	지각된 통제1	0.825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3	0.861	3.364	25.877	91.191	0.950
	주관적 규범4	0.861				
	주관적 규범2	0.857				
	주관적 규범1	0.678				

KMO=0.921,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983.193, $p<0.000$

두번째 매개변수로 제시된 '행동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698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chi^2=207.350$, $p=0.000$ 으로 p 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61에서 0.935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80.354%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행동의도' 요인 Cronback's α 값은 0.875로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4-4〉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²
행동 의도	행동의도2	0.935	2.411	80.354	80.354	0.875
	행동의도1	0.891				
	행동의도3	0.861				

KMO=0.69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07.350, $p<0.000$

세번째 종속변수로 제시된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728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chi^2=224.270$, $p=0.000$ 으로 p 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82에서 0.933으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82.393%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행동' 요인 Cronback's α 값은 0.892로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4-5〉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²
행동	행동1	0.933	2.472	82.393	82.393	0.892
	행동3	0.908				
	행동2	0.882				

KMO=0.728,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24.270, $p<0.000$

2) 산양리 마을

본 연구 모형의 주요 구성요인 중에서 우선 독립변수로 제시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공통성 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요인 항목인 '태도 3'과 단일 요인으로 설정되지 않는 항목인 '지각된 행위통제 1'을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태도' 요인 측정 항목은 최초 5개에서 4개로, '지각된 행위통제' 항목은 최초 4개에서 3개로 감소한 반면, '주관적 규범' 항목은 최초 4개로 유지되었다.

탐색적 요인을 통하여 추출한 요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KMO=0.847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chi^2=1,045.743$, $p=0.001$ 로 p 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591에서 0.909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76.279%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태도' 요인 Cronback's α 값은 0.844, '지각된 행위통제' 요인 Cronback's α 값은 0.848, '주관적 규범' 요인 Cronback's α 값은 0.911로 모두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은 개념 간 타당성이 높고 측정 항목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독립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²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2	0.909	3.366	30.597	30.597	0.911
	주관적 규범4	0.897				
	주관적 규범3	0.891				
	주관적 규범1	0.682				
태도	태도4	0.835	2.734	24.853	55.451	0.844
	태도5	0.800				
	태도1	0.778				
	태도2	0.682				
지각된 행위 통제	지각된 행위통제4	0.868	2.291	20.828	76.279	0.848
	지각된 행위통제3	0.863				
	지각된 행위통제2	0.591				

KMO=0.84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045.743, $p < 0.001$

두번째 매개변수로 제시된 '행동의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717로 기준점 0.5를 넘었으며, Bartlett 구형성은 $\chi^2=172.955$, $p=0.000$ 으로 p 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43에서 0.902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77.809%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행동의도' 요인 Cronback's α 값은 0.850으로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4-7〉 매개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요인	변수명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²
행동 의도	행동의도1	0.902	2.334	77.809	77.809	0.850
	행동의도2	0.900				
	행동의도3	0.843				

KMO=0.71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72.955, p<0.000

세번째 종속변수로 제시된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베리맥스 회전법을 통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KMO=0.727로 기준점 0.5를 넘겼으며, Bartlett 구형성은 $\chi^2=214,686$, $p=0.000$ 으로 p값이 기준점 0.05보다 작아 연구 응답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한 적재값은 0.871에서 0.926으로 모두 기준 0.5를 상회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일 때 총 분산 설명력은 81.561%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과, '행동' 요인 Cronback's α 값은 0.886로 0.7 이상으로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 4-8〉 종속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eigen value)	설명 변량 (%)	누적 설명변량 (%)	CR ²
행동	행동3	0.926	2.447	81.561	81.561	0.886
	행동1	0.911				
	행동2	0.871				

KMO=0.7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14,686, p<0.000

2. 확인적 요인 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요인이 본 연구의 모형에 적용했을 때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수리 마을'의 경우 본 연구 모형에 적용된 '계획 행동이론(TPB)'의 주요 구성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행동의도', '행동'의 측정 항목 제거 없이 그대로 적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반면, '산양리 마을'의 경우에는 공통성 값이 0.5 미만으로 나타난 요인 항목인 '태도 3'과 단일 요인으로 설정되지 않는 항목인 '지각된 행위통제 1'을 제거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252.135$, $p=0.000$, $df=137$, $TLI=0.964$, $CFI=0.971$, $EMSEA=0.082$ 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은 X^2 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표 4-9〉 측정모형 적합도(청수리 마을)

모형	X^2 (CMIN)	df	TLI	CFI	EMSEA
측정모형	252.135***	137	0.964	0.971	0.08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4-10〉과 같이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 ‘행동’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청수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태도	태도1	1.000	.986		
	태도2	1.049	.999	.017	63.48***
	태도3	1.072	.987	.022	47.996***
	태도4	1.085	.965	.031	34.906***
	태도5	1.042	.987	.022	47.884***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1	1.000	.743		
	주관적 규범2	1.121	.969	.095	11.825***
	주관적 규범3	1.104	.981	.092	12.003***
	주관적 규범4	1.138	.988	.094	12.102***
지각된 행위 통제	지각된 행위통제1	1.000	.958		
	지각된 행위통제2	.853	.880	.050	17.121***
	지각된 행위통제3	.846	.856	.054	15.787***
	지각된 행위통제4	.865	.868	.053	16.424***
행동 의도	행동의도1	1.000	.814		
	행동의도2	1.027	.851	.089	11.561***
	행동의도3	1.111	.852	.096	11.59***
행동	행동1	1.000	.898		
	행동2	.825	.841	.061	13.496***
	행동3	.947	.842	.070	13.546***

* $p<.05$, ** $p<.01$, *** $p<.001$

2) 산양리 마을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X^2=201.798$, $p=0.001$, $df=108$, $TLI=0.932$, $CFI=0.946$, $EMSEA=0.084$ 로 나타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은 X^2 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표 4-11〉 측정모형 적합도(산양리 마을)

모형	X^2 (CMIN)	df	TLI	CFI	EMSEA
측정모형	201.798***	108	0.932	0.946	0.084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4-12〉와 같이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 ‘행동’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수준 0.0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산양리 마을)

요인	측정변수	Estimate		S.E.	C.R.
		B	β		
태도	태도1	1.000	.617		
	태도2	1.283	.732	.194	6.63***
	태도4	1.837	.917	.244	7.534***
	태도5	1.347	.778	.195	6.922***
주관적규범	주관적 규범1	1.000	.534		
	주관적 규범2	2.043	.974	.297	6.879***
	주관적 규범3	1.823	.892	.275	6.628***
	주관적 규범4	1.974	.979	.286	6.893***
지각된 행위통제	지각된 행위통제2	1.000	.780		
	지각된 행위통제3	1.308	.818	.139	9.378***
	지각된 행위통제4	1.228	.847	.126	9.708***
행동의도	행동의도1	1.000	.733		
	행동의도2	.981	.739	.087	11.222***
	행동의도3	1.376	.848	.143	9.596***
행동	행동1	1.000	.838		
	행동2	.916	.845	.078	11.687***
	행동3	1.099	.871	.089	12.287***

* $p<.05$, ** $p<.01$, *** $p<.001$

제3절 연구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설계된 연구 모형을 토대로 도출된 총 4개의 가설 중 ‘청수리 마을’은 3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1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반면, ‘산양리 마을’은 총 4개의 가설 중 2개의 가설이 채택되었고, 2개의 가설은 기각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모형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수리 마을

가설 검증에 앞서 우선적으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X^2=303.849$, $p=0.000$, $df=139$, $TLI=0.950$, $CFI=0.959$, $EMSEA=0.098$).

측정모형은 X^2 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표 4-13〉 측정모형 적합도(청수리 마을)

X^2 (CMIN)	df	TLI	CFI	EMSEA
303.849***	139	0.950	0.959	0.098

‘가설 1’은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136, C.R 값은 2.709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가설 2’는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023, C.R 값은 -0.322, $P=0.75$ 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 되었다.

‘가설 3’은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945, C.R 값은 9.358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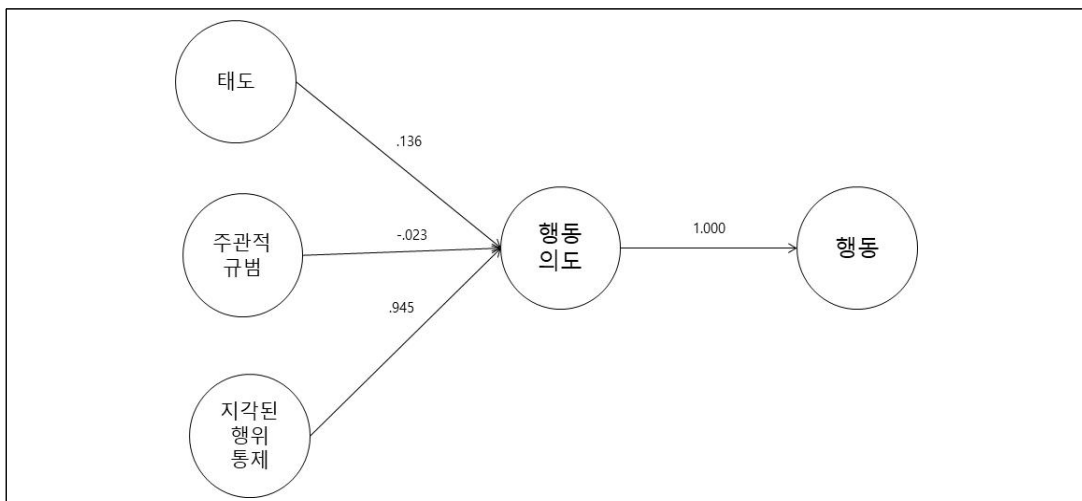
‘가설 4’는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참여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1.000, C.R 값은 11.893,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14〉 청수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가설 채택
		B	β			
H1	태도→행동의도	.144	.136	.0530	2.709**	채택
H2	주관적 규범→행동의도	-.023	-.023	.070	-0.322	기각
H3	지각된 행위통제→행동의도	.777	.945	.083	9.358***	채택
H4	행동의도→행동	1.330	1.000	.112	11.893***	채택

* $p<.05$, ** $p<.01$, *** $p<.001$



〈그림 4-1〉 청수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2. 산양리 마을

가설 검증에 앞서 우선적으로 본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X^2=156.887$, $p=0.002$, $df=110$, $TLI=0.967$, $CFI=0.973$, $EMSEA=0.59$).

측정모형은 X^2 지수가 0.05 이상, TLI 지수가 0.9 이상, CFI 지수가 0.9 이상, EMSEA 지수가 0.1 이하이면 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상진, 2016).

〈표 4-15〉 측정모형 적합도(산양리 마을)

X^2 (CMIN)	df	TLI	CFI	EMSEA
156.887**	110	0.967	0.973	0.59

‘가설 1’은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1’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217 , C.R 값은 -1.385 , $P=0.166$ 으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되었다.

‘가설 2’는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0.213 , C.R 값은 -1.346 로 $P=0.178$ 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기각 되었다.

‘가설 3’은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1.313 , C.R 값은 5.272 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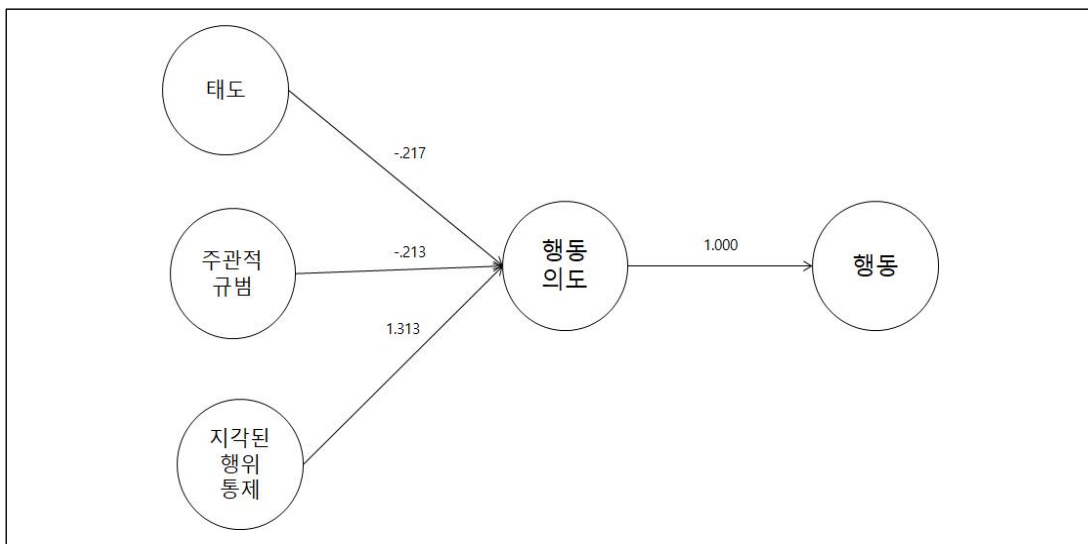
‘가설 4’는 ‘산양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참여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 4’를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β)은 1.000 , C.R 값은 9.584 ,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표 4-16〉 산양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Estimate		S.E.	C.R.	가설 채택
		B	β			
H1	태도→행동의도	-.317	-.217	.229	-1.385	기각
H2	주관적 규범→행동의도	-.257	-.213	.191	-1.346	기각
H3	지각된 행위통제→행동의도	1.116	1.313	.212	5.272***	채택
H4	행동의도→행동	1.250	1.000	.130	9.584***	채택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2〉 산양리 마을의 가설 검증 결과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별로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마을별로 차이가 있었다. '청수리 마을' 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산양리 마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 행동의도가 높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주경·조광래·이홍재, 2015). '청수리 마을'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는 꽃자왈의 중요성이 부각되며(민동원, 2014), 꽃자왈 지대가 분포한 마을공동목장(부혜진·강창화·정광중, 2016)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천²⁾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수리 마을' 주민 대부분이 마을 관광사업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사업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문용철, 2014). 반면, '산양리 마을'은 2022년 2월부터 '산양큰엉꽃'을 개장하여 '꽃자왈 생태탐방 체험프로그램'과 '반딧불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양리 마을'은 관광개발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청수리 마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이해 및 인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마을별로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u&Chen(2016)의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은 생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2)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http://cheongsuri.kr/introduction>)

Li&Nakatsuka(2020)의 연구에서도 ‘주관적 규범’은 일본 농촌지역의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참여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즉각적인 의사결정 의도가 아닌 향후 행동의도와 관련 되어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Wu&Chen(2016)는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즉각적인 의사결정 의도가 아닌 미래 행동의도와 관련될 때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미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우 각각 30.4%, 14.4%가 현재 거주 지역의 원주민이 아닌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러한 점으로 인해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귀촌인들은 원주민과의 의사소통을 어려워하고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며, 이는 다시 사업 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느끼며 사업 참여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안승혁·윤승진, 2021).

셋째, 마을별로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인 고진숙·서영수(2016), 정남식·김용근(2017), Wu&Chen(2018), Erul(2018), Gao&Chen(2022)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지가 강할수록, 그리고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을수록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의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주경·조광래·이홍재, 2015).

넷째, 마을별로 마을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행동’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인 고진숙·서영수(2016), Erul(2018), Wang et al(2020) 등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 연구의 의의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문에서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으로 우수성이 입증된(han&Kim, 2010; 이정기 외, 2013; 정진·안관수, 2013; 권미영, 2014) ‘계획행동이론(TPB)’을 관광학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참여행동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존 국내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에서는 생태관광, 공정관광, 음식관광, 녹색관광 등에서의 관광객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계획행동이론(TPB)’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손정기·남장현, 2016)된 반면,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고진숙 외, 2017).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기존 국내 관광학 분야 선행연구에서는 실제 ‘행동’을 측정하기 보다는 ‘행동의도’까지만 측정하는 경우가 수행되어 ‘행동의도’가 실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고민환·이충기, 2019). 허윤주(2015)도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Erul, 2018; 고진숙·서영수, 2017; Erul et al, 2020; Wang et al, 2020; Lee et al, 2022)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양수 외(2013)가 지적했듯,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자발적인 참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한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승원·심석희, 2020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Radzuan et al(2015)의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한국의 역사 마을 보존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 인식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의사결정에의 권한과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Marzuki, Hay&James, 2012; Rasoolimanesh et al, 2017).

둘째,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행동의도'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eeran(2002)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의도'는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단기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추정 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고봉호, 2017 재인용). 즉, '행동의도'가 커질수록 실제 '행동'이 수행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하였다(유동숙, 2017).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민규, 2007; Erul, 2018).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긍정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 할 필요가 있다(박창규·김혜영, 2011).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의 연구에서도 관광개발 진행 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 참여 제고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표본 수와 특정 기간에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의 '행동의도'가 실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에 대한 행동은 관광산업에 대한 지역경제의 의존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어 향후 연구에는 다양한 요인들을 연구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들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청수리 마을' 및 '산양리 마을' 모두 '주관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부족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및 단행본】

- 강신겸(2001). 지역사회 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신겸·최승담(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社會科學論叢』 20: 203-222.
- 강신겸·최승담(2002).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측정척도 개발: The Measurement of Residents' Community Attachment in Tourist Destination. 『관광학연구』 26(1): 103-117.
- 강신겸·최영국·김성진·윤양수(2004).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국토연구원.
- 강은주(2021).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관광지의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특성과 지속적 이용의도 관계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민규(2007).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과 주민참여 관계: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민환·이충기(2019).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반일인식이 일본관광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관광레저학회』 31(10): 99-69.
- 고봉호(2017). 계획행동이론의 확장을 적용한 특급호텔종사자의 창업의도 및 행동 : 경력지향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진숙·서영수(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의도관계 분석: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8(9): 7-25.
- 고진숙·서영수(2017). 계획행동이론(TPB)을 적용한 농촌관광개발사업의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3): 5-20.
- 고한익(20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균형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401-415.
- 권미영(2012). 계획행동이론(TPB)을 이용한 적용한 호텔 한식당 이용고객의 소비행동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37(1): 101-124.
- 권웅(2015). 계획행동이론에 근거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지속 모형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4(4) 929-940.

- 권유진(2022). 지속가능지능이 계획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계지질유산자원인 제주 꽃자왈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조(2020). 한국판 뉴딜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 방향. 『한국관광정책』 81: 22-32.
- 김대관(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 김도희(199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사례연구. 『관광개발논총』 9: 244-271.
- 김민철·최용복·부창산(2014). 중국관광객의 의료관광지 선택의도. 『관광연구저널』 28(1): 159-170.
- 김보람(2022). 관광시설의 입지가 관광객 방문에 미치는 영향: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격자분석기법의 적용.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미·김상오(2012). 도시민의 수목장에 태도 및 수목장 선택의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6(1): 100-112.
- 김상진(2016). 민간경비원의 직업선택 동기가 직업선택 평가 및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보안논문지』 16(6): 73-82.
- 김성일·박석희(2001).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 김수(2018).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본 마을공동체 참여 행위에 대한 연구: 서울시 성북구 삼덕마을의 사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경·조광래(2015). 지역주민의 환경정책 참여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학보』 12(2): 241-258.
- 김주년(2004). 지속가능한관광개발지표(STDI)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준·이상주·김정훈(2020). 합리적 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 휴리스틱변수가 학습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교육복지연구』 24(1): 61-87.
- 김홍범·윤진영·이재형(2012). 해외여행의 위험지각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 적용. 『호텔관광연구』 44(1): 67-81.
- 김효연·류기상·류형서(2016). 유기농 식품점 제품의 구매의도: 확장된 계획행동 이론과 확장된 목표지향행동모델 비교. 『외식경영연구』 19(1): 391-411.
- 당약함(202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분석: 텍스트 마이닝과 의미연결망을 기반으로.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용철(2014). 제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지역의 주민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선주(2016). 백두대간보호 지역주민의 보호지역지행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규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중환·주현식(2009). 호텔고객의 행위신념과 주관적 규범이 태도와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1(4): 509-524.
- 박창규·김혜영(2011). 지역주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이 농촌관광개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지리학회』 14(3): 419-436.
- 배병렬(1994). 행동의도 모형의 검토: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행동이론.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25: 97-115.
- 부혜진·강창화·정광중(2016). 제주도 중산간 곳자왓 지대의 마을공동목장 운영과 방목활동을 통한 생활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2): 353-368.
- 서해란·이충기(201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중국관 광객의 방한 의사결정 연구. 『호텔관광연구』 17(2): 1-16.
- 성보현(2019). 계획행동이론을 통한 생활문화활동 참여의도 영향요인 분석: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충북연』 30(1): 43-62.
- 손용곤·이병관(2012).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적 행동 모델의 유용성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회』 56(6): 127-161.
- 손정기·남장현(2016). 합리적 행동이론(TRA)과 계획행동이론(TPB)의 구조방정식모델 비교연구 : 음식관광행동 예측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31(2): 61-80.
- 심원섭(2016).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허용정책을 둘러싼 관광개발과 환경보전의 딜레마: 공리주의와 보호된 가치 프레임의 충돌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1): 111-132.
- 안승혁·윤순진(2021). 행위자 기반 모형을 활용한 농촌관광 사업 주민 참여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농촌계획』 27(2): 77-89.
- 오민정(202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적용한 직업가치가 직업선택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관광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정학·윤유식(2009). 지역에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강원도지역 사례. 『관광연구』 24(5): 275-295.
- 유광민·김기완·김남조(2007). 관광개발에서 주민태도연구의 비판적 고찰: 사회적교환이론과 사회표상이론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19(2): 111-132.
- 유동숙(2016).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의 행동의도 연구: 계획행동이론에 즐거움-각성차원을 매개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동숙·홍경완(2017).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농촌관광의 행동의도 연구 : 계획행동이론에 즐거움 각성차원을 매개로. 『관광연구저널』 31(3): 65-80.

- 유정우(2006). 지속가능 관광개발 및 사회자본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관광거버넌스 간의 구조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병국·최승일(2011). 새만금 관광개발 영향요인과 지역주민 인식과의 관계. 『관광레저연구』 23(6): 23-38.
- 윤유식(2009). 농촌관광마을 사회적자본에 따른 관광개발태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연구. 『농촌관광연구』 16(3): 41-61.
- 이원희(2005).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계획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이재석·이충기(2010).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이용한 스키리조트 방문객의 의사결정과정 연구. 『한국호텔관광학회』 12(4): 1-19.
- 이정기·우형진·이화행·박성복·김동규·최민음·김효은·금현수·정은정·박성순(2013). 계획행동이론 미디어와 수용자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준엽·안태기(2008). 축제방문자의 먹거리 구매행동 예측에 대한 계획행동이론의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2): 116-124.
- 이충기·고성규·임성희(2017).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승마체험 행동의도 연구: 청소년 승마체험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1(7): 5-19.
- 이충기·류재숙·고성규(2017). 승마체험 계획행동과정에서 체험효과의 조절역할: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1(11): 5-7.
- 이태숙·김철원(2015). TPB를 적용한 공정관광(Fair Tourism) 행동 모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39(6): 95-112.
- 이학식·김영(2000).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평가와 대안적 견해: 소비자 구매행동의 맥락에서. 『소비학연구』 11(4): 21-47.
- 이화춘(2013). 지역발전 전략의 사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홍천군의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1(1): 27-58.
- 임수진·한규석(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6(3): 413-427.
- 임재필·류재숙(2022). 계획행동이론(TPB)을 활용한 MZ세대의 친환경 관광행동 연구. 『관광연구저널』 36(11): 113-125.
- 임화순·고계성(2012).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이 태도 및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8(1): 123-139.

- 장두영·고민환(2020). 한국인의 적개심이 일본 관광행동에 미치는 영향: 합리적 행동이론 적용. 『호텔경영학연구』 29(7): 237-251.
- 장모나(2021). 지역사회 애착도와 관광영향 인식이 친환경 행동의도와 관광개발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사회를 사례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경(2005).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관광개발 태도에 관한 연구: 중문관광단지 인근 거주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형구·김민수(2005). 인터넷뱅킹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5(1): 117-138.
- 정남식·김용근(2017).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적용한 공유재 관리의도 영향요인 분석: 남해 가천 다랑이 논 종합관리를 중심으로. 『농촌계획』 23(4): 169-178.
- 정승훈(2014).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개발 지지도 관계 분석: 제주도 관광권역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47: 253-227.
- 정승훈(2014). 제주밭담 농업 시스템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지도. 『관광연구』 28(11): 5-23.
- 정승훈(2019). 도시재생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부신뢰, 영향 인식, 지지의 관계분석. 『관광경영연구』 23(3): 223-245.
- 정승훈(2019).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 인식, 정부 신뢰, 개발 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33(8): 47-64.
- 정진·안관수(2013)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노인프로그램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1(11): 683-691.
- 조광익·김남조(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조대우·환경연(2001). 인터넷뱅킹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0(4): 1,225-1,249.
- 차동필(2005). 폭음행동 이해: 계획행동이론의 적용과 확장. 『한국언론학보』 49(3): 346-390.
- 최광웅·서용건(2019) 지속가능한 관광 측정평가 연구: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7(1): 107-121.
- 최윤석·김인신·정호권(2014).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이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환경적지속가능성 인식, 친환경행동 및 관광개발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성감의 조절효과와 함께. 『관광레저연구』 26(9): 397-414.

- 한국관광공사(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 허윤주(2015). 확장된 계획행동이론(ETPB)을 적용한 문화자본이 문화예술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내국인 해외관광객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진영·최헌혁(2008). 계획행동이론을 적용한 모험스포츠 참여의도와 지속행동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17(2): 355-367.
- 현용호(2012). 메가이벤트에 대한 지역민 참여 행동 예측 요인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대상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1(6): 287-308.
- 홍충렬·김원진(2004).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동굴관광자원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4: 27-36.

【국외문헌 및 단행본】

- Agag, G. and Colmekcioglu, N. (2020). Understanding guests' behavior to visit green hotels: The role of ethical ideology and religio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91: 102679.
-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Action control* (pp. 11-39). Springer, Berlin, Heidelberg.
- Ajzen, I. (2002).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J. and Diver, B.L. (1992). Application of the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3): 207 - 224.
- AL Ziadat and Mamdouh, T. (2015). Applications of Planned Behavior Theory (TPB) in Jordanian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ing Studies*. 7(3): 95-106.
- Aydin, H. and Aydin, C. (2022). Investigating consumers' food waste behaviors: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of Turkey sample. *Cleaner Waste Systems* . 3: 100036.
- Choi, H. S. C. and Sirakaya, E. (2005). Measuring Resident's Attitude towar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f Sustainable Tourism Attitude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43(4): 380-394.
- Diehl, J. A. and Chan, I. S. L. (2021). Is it just apathy?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o understand young adults'(18 to 35 years old) response to government efforts to increase planning participation in Singapore. *Urban Governance*. 1(2): 89-97.
- Erul, E. (2018). *Considering Residents' Behavioral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the Emotional Solidarity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 Erul, E. and Woosnam, K. M. and McIntosh, W. A. (2020). Considering emotional

- solidarit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explaining behavioral intentions to support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8(8): 1,158 - 1,173.
- Gao, Y. and Chen, L. (2022). Impact of COVID-19 Risk Perception on Residents' Behavioural Intention towards Forest Therapy Tourism. *Sustainability*. 14 (18): 11,590.
- Han, H. and Hsu, L. T. and She, C. (2010).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green hotel choice: Tes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riendly activities. *Tourism Management*. 31: 325 - 334.
- Han, H. and Kim, Y. (2010). An investigation of green hotel customers' decision formation: Developing an extended model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9(4): 659-668.
- Hsu, C. H. C. and Huang, S. (2012).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for tourists.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6(3): 390 - 417.
- Huan, Y. and Aguilar, F. and Yang, J. and Qin, Y. and Wen, Y. (2021). Predicting citizens' participatory behavior in urban green space governance: Application of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Urban Forestry & Urban Greening*. 61: 127110.
- Lee, J. H. and Joo, D. O. and Lee, C. K. and Parkt, Y. N. and Kwon, Y. J. (2022). The role of residents' sustainable intelligence in agricultural heritage site management: Insights from PLS-SEM and Fs/QCA.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52: 65 - 74.
- Lee, T. H. (2013). Influence analysis of community resident support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34: 37-46.
- Li, J. and Nakatsuka, M. (2020). Residents' Awareness of Inbound Tourism in Rural Community in Japan: Case Study on Tambasayama City, Hyogo Prefecture. *Pertanika Journal of Social Sciences & Humanities*. 28(3): 1,891-1,907.
- Marzuki, A., Hay, I., & James, J. (2012). Public participation shortcomings in tourism planning: The case of the Langkawi Islands, Malaysi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0(4): 585-602.

- McCool, S. F., and Martin, S. R.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 - 34.
- Obradović, S. and Stojanović, V. and Kovačić, S. and Jovanovic, T. and Pantelić, M. and Vujičić, M. (2021). Assessment of residents' attitudes towar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A case study of Bačko Podunavlje Biosphere Reserve, Serbia. *Journal of Outdoor Recreation and Tourism*. 35: 100384.
- Panwanitdumrong, K. and Chen, C. L.(2021). Investigating factors influencing tourists'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with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coastal tourism in Thailand. *Marine Pollution Bulletin*. 169: 112507.
- Radzuan, I. S. M. and Inho, S. and Ahmad, Y. (2015). A rethink of the incentives programme in the conservation of South Korea's historic villages.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5(2): 1,044-1,266.
- Rasoolimanesh, S. M., Jaafar, M., Ahmad, A. G., & BarghiR.(2017). Community participation in World Heritage Site conserv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Tourism Management*, 58 : 142-153.
- Tajeddini, K. and Rasoolimanesh, S. M. and Gamage, T. C. and Martin, M. (2021).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96 102950
- Tang, D. and Gong, X. and Liu, M. (2022). Residents' behavioral intention to participate in neighborhood micro-renewal based on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case study in Shanghai, China. *Habitat International*. 129: 102672.
- Wang, C. and Zhang, j. and Yu, P. and Hu. H.(2018).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s a model for understanding tourists'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s: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al interpretation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94: 425-434.
- Wang, Z. and Mao, X. and Zeng, W. and Xie, Y. and Ma, B. (2020). Exploring the influencing paths of natives' conservation behavior and policy incentives in protected areas: Evidence from China.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744: 140728.
- WTO(1996), WHAT TOURISM MANAGERS NEED TO KNOW: A Practical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Tourism. WTO.
 WTO(1997), Tourism 2000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 for Asia-Pracific. WTO.
 WTO(1998), Guide for Local Authorities on Development Sustainable Tourism. WTO.
 Wu, S. T. and Chen, Y. S. (2018). Local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ecotourism development in Taiwan's Atayal communities.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6(1): 75-96.
 Yu, C. P. and Chancellor, H. C. and Cole, S. T. (2011). Measuring residents' attitudes toward sustainable tourism: A reexamination of the sustainable tourism attitude scal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0(1): 57-63.
 Zemore, S. E. and Ajzen, I. (2014). Predicting substance abuse treatment completion using a new scale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46(2): 174-182.

【웹사이트】

비전21뉴스, '제주시, 청수리 제주다움복원사업 본격 추진', 2022년 10월 26일자 기사, <http://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220372>
 사람인 홈페이지, <https://www.saramin.co.kr/>
 산양리 마을 홈페이지, <https://www.jeju.go.kr/vill/sanyang/intro/about.htm>
 장애인복지뉴스, '2022 산양큰영곳자왈 생태숲길탐방로 정화활동 캠페인 전개', 2022년 07월 24일자 기사,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249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www.jdcenter.com>
 제주환경일보, '제주기상청, 제주 청수리 반딧불이 행사 기상환경관측 지원', 2022년 06월 27일자 기사,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334>
 청수리 마을 홈페이지, <http://cheongsuri.kr>
 헤드라인 제주, 'JDC, 'DMO 사업' 지원대상 23곳 선정...관광기업 성장 지원', 2022년 04월 28일자 기사,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924>

【설문지】

ID			
----	--	--	--

청수리 마을 산양리 마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마을주민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아름입니다.
석사학위논문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마을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본 연구를 위하여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의견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설문지에 작성되지 않은 항목이 있을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빠짐없이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 지도교수: 정 승 훈(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 연구자: 김 아 름(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 지속가능한 관광이란?

1)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이 지속성을 보장하고, 2) 지역(마을)경제에 도움이 되며, 3) 관광지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문화를 해지치 않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꽃자왈이 분포한 ‘마을공동목장’ 훼손을 최소화하여, 꽃자왈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개발(꽃자왈 생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반딧불이 축제 운영 등)을 통해 마을 경제(일자리 창출, 소득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구분	연계 자원	프로그램	축제	참여자
청수리 마을	마을공동목장 (꽃자왈)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	지역주민
산양리 마을		생태체험프로그램		



청수리 꽃자왈 반딧불 축제



산양큰엉곶

4. 귀하께서는 향후에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 또는 참여하려고 하십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련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5. 귀하의 가족/이웃들은 귀하께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가족/이웃들은 내가 마을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평소 귀하가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참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 여부는 나에게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BSTRACT

Local residents' behavioral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case study of Cheongsu-ri and Sanyang-ri villages in Jeju

A Reum Kim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Resident engagement and support are considered essential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a sustainable tourism destination. As such,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resident participation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this study identified the determinants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factors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e TPB has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but empirical studies that examin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rural tourism developments are merely presented.

A survey was conducted in the villages of Cheongsu-ri and Sanyang-ri in Jeju province, where sustainable tourism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among a sample of 250 residents over a period of 13 days in October and November of 2022.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ponses, conducted using AMOS, is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the villages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n behavioral intentions. Second, both village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fluence of

residents' subjective norms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contradicting previous research. Third, both village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behavioral intentions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Fourth, both villages showed a positive influence of behavioral intentions on behavior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rough the hypothesis testing of this study, it was revealed that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owards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s. That is, the stronger the residents' intention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nd the more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they have, the higher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incentives and reward systems accordingly in order to increase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among residents. Further, intention to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ctual participation. It is crucial to implement policy efforts that promote an environment in which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Keywords: theory of planned behavior, sustainable tourism, tourism development, Local residents' behavi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